21세기 교육환경의 변화와 대학 발전의 방향

이 재 정
국회의원

교육, 연구, 봉사는 대학의 3대 중심기능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은 지난 시기의 눈부신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대학교육 정신을 체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공급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주입식 교육 방식이 기본이었던 20세기형의 교육 방식은 이제 국가와 개인이 대학에 대하여 기대하는 바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21세기를 맞아 근본적인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 및 대학교육의 이념과 내용, 그리고 기능은 불가피하게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 교육의 이념과 내용의 변화

21세기는 다원화, 탈산업화, 지식정보화,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근대사회의 속성을 탈피하여 완전한 지식기반사회로 진입하는 역사적 전환기이다. 이처럼 급격하는 전지구적인 변화에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21세기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과거의 유산이라 할 수 있는 수요자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인 대학교육, 획일화되어 있는 학사 운영과 교육 프로그램, 관료적인 대학 행정 구조 등이 지속되는 한 경쟁력 있는 고등교육의 실현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21세기를 능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육의 전반적인 재구조화(restructuring)가 요구되며, 이로써 대학은 그 교육이념에 합치되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주요한 재구조화의 영역으로서는 ① 새로운 대학의 이념 및 기능 설정, ② 대학의 자율적 경쟁체제 수립, ③ 대학의 교육 프로그램 및 학사 운영, ④ 대학의 교육 및 연구 개발 체제, ⑤ 대학 경영혁신 등을 들 수 있다.

• 이념, 기능적 변화의 방향

고등교육에 있어서의 경쟁은 자율적이고 글로벌(Global)한 경쟁체제로의 전환을 거치면서 경제와 마찬가지로 국경 없는 경쟁의 양태로 전개될 것이다. 과거의 대학이 학문의 상아탑으로서 기능했다면 현재는 직업지향적 기술탑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한편으로 긍정적인 면을 갖고 있지만 경쟁력만을 지향하면서 기초학문에 대한 연구와 교육이 등한시되어, 이 분야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 같은 위기 극복을 바탕으로 하여 21세기의 고등교육은 고부가가치를 지닌 지식과 기술을 생성하고 전파하는 정보와 지식의 핵심 bank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실용적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전문적인 직업수행능력을 육성하는 데 비중이 두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1세기의 고등교육은 고부가가치를 지닌 지식과 기술을 생성하고 전파하는 정보와 지식의 핵심 bank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 사립대학의 발전

종합대학을 지향하는 몸집 불리기 식의 대학운영은 경영 상태를 악화시키고 대학의 질을 전반적으로 하락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이 어떻게 다양화되고 개성있게 변모할 것인가가 문제해결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 대학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사립대학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사립대학의 경쟁력 강화가 곧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등식도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상당수의 대학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대학의 구조적 ·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개선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민주당이 제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다. 21세기의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대학은 존립을 위해 다양한 자구책과 비전을 구축해 나가야 하며 대학 스스로 경쟁력 있는 학문 분야를 중심으로 체제를 개편하는 노력이 요구되는 바, 이를 위해서는 여 · 야의 정파를 초월한 전폭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대학의 자율적 경쟁을 위해서는 대학간 교류를 확대하고 자율적 경쟁을 위한 대학 정보의 완전 공개를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 21세기 대학발전의 방안

1. 대학간 교류의 활성화

대학의 자율적 경쟁을 위해서는 건전한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학간 교수 요원, 교육 정보, 교육 시설, 교육 프로그램의 교류를 확대하고 자율적 경쟁을 위한 대학 정보의 완전 공개를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재정 및 교육 프로그램, 교수 요원 현황, 취업률 등이 완전히 공개되어야 하며, 이렇게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대학 평가 및 지원을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볼 때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금까지 쌓아 온 know-how는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자산이 될 것이다.

2. 대학평가인증제 도입

기존의 양적 평가방식을 지양하고 질적 평가를 할 수 있는 지표들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대학평가인증제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

3. 정부의 역할 축소

자율경쟁 체제하에서 대학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과거와 같은 '정부의 지시적 자원배분구조(government-directed allocation of resources)'에서 벗어나 대학 스스로의 경쟁을 통해 해결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이 마땅하다.

4. 대학의 기능적 특성화 도모

대학을 기능별로 특성화하여 학문 및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관리자 양성대학, 기술자 양성대학 등으로 다양하게 분화해 나가도록 각 대학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특성화된 영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 수요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5. 설립별 · 지역별 특성화, 다양화

국립대학의 경우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국가가 중점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학문분야 및 전략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분야로만 제한적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 경우, 지역사회의 특수성과 지역기반 산업과의 연계 등을 모색하여 공존 ·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특성화를 모색하여야 한다.

대학교육의 질적 전환기에 있어서 대학교육의 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대교협의 역할은 더 한층 중요하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21세기는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사회로 이행해 가는 대전환의 시기이며, 우리의 대학들 역시 과거의 역사에서 볼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대학교육의 질적 전환기인 21세기를 맞이하여 우리 대학교육의 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역할은 더 한층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재정
초대 성공회대 총장, 세계성공회협의회 상임위원(ACC),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사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16대 국회의원(새천년민주당), 민주개혁국민연합 공동대표, 대통령 직속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위원 등 많은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